

신약성경 제1강 팔레스틴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1. 알렉산더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정치적 역사적 개요

1) 바벨론에 포로와 귀환

*1차 포로 : 주전 605년(다니엘 :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 궁정에서 활동)

*2차 포로 : 주전 597년(에스겔 : 예루살렘 함락 이후 바벨론의 포로들).

*3차 포로 : 주전 586년(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2) 귀환

*1차 귀환 : 주전 538년 스룹바벨의 지도(제 2성전을 건축)

*2차 귀환 : 주전 458년 에스라의 지도(영적 부흥운동)

*3차 귀환 : 주전 444년 느헤미야(예루살렘 성벽 재건)

3)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한다(주전 334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창건했다(주전 331년).

*인도까지 이르렀으나 32세에 열병으로 죽고, 헬라제국은 여러 장군이 통치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애굽을 통치한 푸톨레미 왕조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아와 그 동편을 통치한 셀루키드 왕조이다.

4) 팔레스틴은 애굽과 수리아 사이에서 번갈아 통치를 받는다. 주전 320년에 푸톨레미 1세에 의해 애굽에 합병되어 122년 동안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주전 198년 셀루키드의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틴을 애굽에서 빼앗아 합병한다. 주전 17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한다.

5) 마카비의 반란으로(주전 167년)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쟁취하다. 마카비는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셋째 아들이다. 주전 164년 12월에 성전이 봉헌되었다(유대인의 수전절). 마카비는 전쟁(주전 160년)을 해서 수리아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주전 63년) 약 80년간 독립을 얻었다.

6)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7) 로마는 유대인을 이두메인 헤롯의 통치 하에 두었다(주전 37년). 주전 42년 로마의 안토니가 빌립보 전쟁으로 권세를 얻자,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했다.

8) 헤롯 1세는 헬라화 정책을 급속히 추진했다. 정치가로는 유능했으나 가정생활은 불행했다.

헤롯 1세가 죽은 뒤 유언대로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다. 아겔라오는 팔레스틴 남부, 빌립은 북동쪽,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을 다스렸다.

9) 주후 66년 유대 안에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와 전쟁을 했다. 그러나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은 함락되었다.

2.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

1) 군대 : 로마 군대(가이사라 주둔)와 헤롯 군대(가버나움)가 있었다.

2) 헤롯에게는 제한된 행정권만 주었다. 사형은 총독의 권한이고, 비정치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3) 산헤드린 공회 : 최고의 공회이다. 성전 경찰을 가진다. 국경 밖에까지 권한을 미친다.

4) 당시 여자들의 신분은 열등했다.

5) 결혼은 조혼이었으며, 결혼은 정혼식과 잔치와 결혼 예식으로 이루어진다.

6) 이혼에 대해서, 삼마이 학파는 아내의 부정으로 해석하고, 힐렐학파는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7)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강조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전한 이스라엘인으로 구분했다.

8) 부정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다. 세리나 당나귀 물이군, 행상인, 피장, 목자 등이다.

9) 개종자에는 문의 개종자(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의의 개종자로 구분한다.

3. 팔레스틴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

초대교회 당시 문화는 크게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헬레니즘이고, 둘째는 유대교이고, 셋째는 로마의 제국주의이다.

<헬레니즘>

1) 로고스 : 헤라클리투스는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우주에 있는 영원한 질서의 원리인 로고스뿐이라고 했다.

2)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 물질세계는 보이지 않은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곳은 이데아의 세계이다. 여기에 이원론이 있다.

- 3)영지주의 :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물질세계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은 세계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물질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 영은 깨끗하고 물질은 더럽고 실재하지 않는다.
- 4)신플라톤주의 : 영적 생활은 지적 노력이 아니라 무한자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성육신 교리와 조화할 수 없다.
- 5)에피쿠리안주의 : 세계는 원자가 우연히 결합된 것이다.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얻는다(행17:18).
- 6)스토아철학 : 우주는 절대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 절대 이성에 일치된 생활이 최고의 선이다. 감정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완전한 자기 절제를 삶의 목적으로 보았다. 기독교 윤리와 비슷하나 실재는 아니다.

〈유대교〉

- 1)유대교의 기원 : 에스라에서 시작된다. 1세기 당에 팔레스틴 인구는 약 150-200만이고, 유대인은 약 1/3이다.
- 2)바리새파 : 주전 2세기에 핫시딤(경건한 사람들)에서 유래되었다. 온건한 힐렐파와 엄격한 샴마이파가 있다.
- 3)사두개파 : 마카비 때 정치에 참여한 권력층이다. 제사장 가문이나 귀족 지주의 후손들이다.

	바리새파(초자연주의자)	사두개파(자연주의자)
역사관	하나님의 예정	예정 부인, 개인 자유 강조
종말론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	부인
영적 존재	천사와 악마 믿음	부인
종교적 권위	구약과 미쉬나	오경만 믿음

- 4)에센파 : 바리새파 보다 엄격한 분리주의자이다. 약 4천명으로 사해 서쪽 광야에 있었다.
- 5)서기관과 랍비들 : 구약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전문가이다. 율법사나 교사라 부른다. 대부분 바리새인이다.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킨 결과로 발전된 것이 미쉬나와 탈무드이다.
- 6)흩어진 유대인들과 회당 : 잡혀간 유대인들은 대개가 머물렀다. 헬라문화를 수용하였다. 회당을 발전시키고, 70인경을 번역하였다.

〈로마의 제국주의〉

- *언어 : 라틴어와 헬라어이다.
- *건축 : 벽돌과 몰타르

*종교 : 다신론(아폴로 머큐리 마르스 비너스 다이아나). 이방종교에 관용적이다.

*기독교 박해 : 황제 숭배와 영원한 제국의 환상이 네로 황제부터 박해로 나타난다.

4. 팔레스틴의 지리적 배경과 기후

1)이스라엘은 크게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요단동편 등 4지역으로 나눈다.

2)건기와 우기

신약성경 제2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1. 예수와 세례요한

- 1)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
- 2)설교자로서 요한
- 3)세례자로서의 요한
- 4)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 5)세례 요한의 체포와 순교

2. 예수의 탄생

- 1)배경 : 로마의 지배 하에 소요와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메시아 대망할 때이다.
- 2)족보 : 마태는 요셉의 족보,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언급한다.
- 3)탄생지 : 베들레헴의 어느 동굴(당시 주민은 주로 혈거 생활을 했음).
- 4)연도 : 주전 4년 정도. 수도사 디오니우스의 착오로 인한 것임.
- 5)동방의 박사들 :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이들은 예언자나 천문관측자이다.
- 6)애굽으로의 피난(마2:13) : 성경의 예언을 이룸.

3. 예수의 어린시절

- 1)할례를 받음 : 율법대로(눅2:21-24) 할례를 받았고, 부모는 비둘기 한 쌍을 바쳤다.
- 2)예루살렘 방문(12살 때/눅2:41-52) :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 공생애의 준비

- 1)요한의 세례를 받으심(마3:15) : 공생애 취임식과 같다.
- 2)광야 40일 금식과 시험 : 참 메시아이심(실패한 아담과 달리)과 시험을 이기게 하실 분.
 - *돌로 떡을 만들라(경제적 시험)
 -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정치적 시험)
 - *절하면 천하를 주리라(종교적 시험)

5.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와 사건들

- 공생애는 셋으로 나눈다(유월절을 중심으로 이해)
- *숨겨진 시기(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기까지 1년 반)
 -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기까지(1년)
 -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부활 승천까지(1년)

1)가나의 혼인잔치(요2:1-11)

2)첫번째 유월절/ 성전 정화(요2:13-25) : 성전 정화는 예수 사역의 시작이고 끝이다.

3)나사렛(눅4:21) : 예수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여 회당에서 사61:1-2절을 읽고 해석하였으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눅4:28-30).

4)두번째 유월절 :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세번째 유월절 :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심.

6)가버나움 : 예수의 활동 중심지이다. 1년 동안 이적을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를 따르는 열정적인 군중은 더 이상 없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대와 사람들의 죄성과 예수의 출신과 안식일이나 결례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예수를 떠났다. 예수는 갈릴리에서 6개월간 더 머물렀다.

7)가이사랴 : 갈릴리에서 마지막 6개월은 군중보다 제자를 중심으로 가르쳤다.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마16:21-23).

8)변화산(마17:1-8) : 예수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갈릴리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였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6개월이 걸렸다. 사마리아, 베뢰아, 요단강, 베다니, 에브라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다.

9)사마리아(눅9:52) : 잠자리를 거부당하자 제자들은 보복할 생각을 했다. 수가성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

*초막절을 지내고

*수전절을 지내고

*나사로를 살리심(십자가 죽기 3개월 전)

10)베뢰아(마8:28-34) : 군대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보기 원했다(눅9:7).

11)여리고 : 헤롯의 영토를 떠나(베뢰아), 총독 빌라도의 땅이고 국경 도시이며, 중요한 세관이 있는 여리고로 갔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 높은 사람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눅19:1-5), 거지 바디매

오가 눈을 떴다.(막10:46-52)

8. 예수님의 최후 한 주간

1) 금요일 :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

2) 토요일 :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음(마26:6-13)

3) 주일 : 예루살렘 입성(마21:1-11)

4) 월요일 : 무화과나무를 저주(마21:18-19), 성전정화(마21:12-13)

지방에서 올라온 군중들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며,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극도의 증오로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5) 화요일 : 열 처녀 비유(마25:1-13), 달란트 비유(마25:14-30).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

6) 수요일 : 기록 없음

7) 목요일 : 최후의 만찬과 발을 씻기심(요13:1-6)

*갯세마네의 기도(마26:36-48)

*재판을 받으심(마26:57-68; 27:1-2) : 산헤드린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

*가롯 유다의 자살과 베드로의 부인

8) 금요일(십자가 처형) : 예수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슬픔의 길/비아 돌로로사).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다.

*십자가 칠언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둘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19:27).

넷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일곱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9) 부활 : 예수의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빈 무덤(기절설과 시체도적설)

*둘째, 사도들의 변화

*셋째, 500 명의 목격자들(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심)

*넷째,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심.

신약성경 제3강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었던 구약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제도로써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순절 이후부터 보는 것이 마땅하다.

1. 오순절의 성령강림(행2:1-4)

- 1)장소 : 성전이나 혹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 2)현상 :
- 3)성령의 충만 :
- 4)다른 방언 :
- 5)방언과 창11장의 언어의 혼잡
- 6)성령을 받을 준비

2. 오순절의 설교(행2:14-36)

- 1)사도행전에는 몇 개의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었다.
3:12-26/10:34-43/1:15-22/4:8-12/5:29-32 절에 기록되었다.
- 2)서론(행2:14-21) : 방언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였다.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멸망 때 성취되었고 지금도 궁극적인 구원에 이른다.
- 3)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성경적 근거(행2:22-36)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산상수훈 등)이 아니라 사역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구원 사역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 있다.
29-32절에서는 다윗의 예언을 들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한다. 예수를 다윗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 보다 예수가 더욱 뛰어남을 증거 할 뿐 아니라 시편132:11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증거 한다.
33절과 3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성령의 강림과 예수의 승귀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승귀의 결과”이다. 35절은 시110:1절의 인용이다.

4. 오순절의 결과

- 1)회개의 권고(행2:27-40) : 세례는 물세례이다.

2)교회 성장(행2:41-47) :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더하심이다.

*가르침 *교제 *떡을 함께 나눔 *기도하기를 힘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물건을 통용함 *마음을 같이 하여 모임 *하나님을 찬미함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

5.교회에 대한 반대(행3:1-4:31)

1)사도들에 대한 반대는 미문의 앓은뱅이를 고칠 때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났다. 사도들의 권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바로 역사적인 예수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다.

2)이적에 관한 설교(행3:11-26) : 그의 설교는 십자가 부활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3)첫번째 핍박(행4:1-22) : 기독교의 확장과 함께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은 핍박이다.

사도들을 체포한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한다. 행4:12절은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이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4)사도들의 석방 후에 일어난 일(행4:23-31) : 사도들이 풀려나자 성도들은 찬송(행4:24-28)과 기도(행4:29-30)를 드렸다.

6.교회 안에서의 훈련(행4:32-5:37)

1)그 배경(행4:32-37) :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란 말씀은 당시 구제가 얼마나 활발했었나를 나타낸다. 36-37절에는 요셉(바나바)의 헌신적인 행위가 기록되었다.

2)아나니아와 삽비라(행5:1-11) :

7.교회의 시험(행5:17-42)

1)사도들의 투옥과 구출(행5:17-21) : 사도들의 인기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질투의 요인이 되었다. 마침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2)사도들의 시련과 승리(행5:21-42) :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5:41).”

8.교회의 행정(행6:1-7)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신자와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불평을 말했다. 자기네 과부들이 구

제에 빠진 때문이었다. 이것이 일곱 집사를 세운 동기이다.

일곱 집사는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고 안수는 사도들에 의하여 받았다.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집사는 공궤를 일삼았다. 이들의 자격은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더욱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9. 교회의 핍박(행6:3-8:3)

- 1) 스테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당했다. 첫째는 성전 모독죄 둘째는 율법을 파괴 죄.
- 2) 스테반의 순교 : 스테반은 구역 역사를 개관했다.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강조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관습에 따라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높은 돌 위에 세우고 밑으로 밀어 던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이번에는 돌을 던져 돌무덤을 만든 것이다. 그런 중에도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

10. 이방 전도의 시작(행8:4-40)

- 1)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에 의해서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상종치 않았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 그는 사마리아 복음 전파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6-7절).
- 2) 사마리아는 미신과 이교의 도시였다. 기독교 첫 번째 이단자인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가 기록된다.
- 3) 사마리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행8:15-18) :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초대교회 확장에서 사도들이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이 항상 사도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을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로 보아서 안 된다.
- 4)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 그는 유대교에 개종한 문의 개종자였다. 빌립은 그에게 사53장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을 증거했다. 그 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다.

11. 베드로의 교량 역할(행9:32-11:18)

이방 선교의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다. 행9:32-11:18절에 세 번의 선교여행이 나온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대조된다. 베드로의 선교 여행은 바울의 세계 선교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팔레스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량 역할에 불과하다.

- 1) 룻다에서의 선교(행9:32-35) : 룻다에 베드로가 와서 애니아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

사가 나타난다.

2) 옘바에서의 기적(행9:36-43) :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여자였다. 사도들에 의한 첫 부활이다.

3) 고넬료의 회개(행10:1-2) :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으나 고넬료를 지점으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넬료의 기도와 경건이 표시인 구제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옘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다.

4) 베드로의 환상 :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날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갔다. 아직 아침 식사 전이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행10:13)”는 소리를 들었다. 이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같이 갈 것을 간청했다.

5) 베드로의 설교(행10:23-48) :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멸하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35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 모든 사람들은 외적 특권에 의해 구원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멸망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쁨듯 하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셨다. 예수님이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증거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구원론이다.

신약성경 제4강 사도바울

1. 바울의 어린 시절

바울은 주후 11년경 다소라 불리는 길리기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시장에서 직물업을 하는 상인이었다. 바리새파였다. 집에서는 아람어를 말하고 구약성경 70인경을 읽었다.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취미로 배웠다.

당시 다소는 무역업이 번성한 곳이고 헬라문화의 중심지였다. 스토아 철학인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의 공개 강연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논쟁하는 법을 배웠다. 학교에서는 헬라의 철학과 문학을 배우고 5마일 밖에 가서 여러 종류의 배를 보면서 세계의 항구마다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바울의 세계 선교와 항구는 무관하지 않다.

주후 28년 17살이 될 때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라고 했다. 바리새파에는 유명한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은 가장 유명하였다. 사울은 그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일반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모세의 율법을 배웠다. 후에 바울은 이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롬 7:9)”고 말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바울은 실망했다. 그 율법들을 다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다메섹에서의 회심

1) 살기등등한 청년 사울은 스테반의 사형집행을 “마땅히” 여겼대(행8:59). 이것은 단순히 피동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가담을 말해 준다. 또한 사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성도들을 잡아 투옥하는 일을 전담하는 특별 위임장까지 받았다. 그의 열심은 이방인 도시인 다메섹까지 이르렀다.

2) 때는 정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행9:1-9).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26:14).” “주여 뉘시오니이까(행9:5)” 그 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9:5)”고 대답하셨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3) 이 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

3. 아라비아 3년의 실천신학 교육

1) 행9:23-25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기록한다. 여러 날은 얼마이며 그 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갈1:17절을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다. 기록은 없지만 기도 생활과 그곳에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바울은 다소에서 헬라의 철학 문학 등 여러 교양을 배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과 미쉬나 및 히브리어 등 신학의 필수 과목을 배웠다. 아라비아 3년은 그의 경건생활의 훈련과 함께 실천

신학을 배웠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아레카스4세에 의해 체포 명령이 내려지자 이것을 피해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4. 이방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교회

1)행11:19-21절에 수리아의 안디옥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기록한다. 기독교는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마침내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란 이방에까지 전파되었다.

2)예루살렘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교회에 대표의 자격으로 파송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위험에 처하자 고향인 다소로 내려와 제2의 목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행11:25)에 오게 되었다. 이 때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으며 바울은 다만 그의 협동선교사였다.

3)주후 46년 예루살렘교회는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생겼다. 생활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든 것이다.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하여 구제 헌금을 거두어 보내는 한편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게 하였다(행11:39).

5.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1)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를 도와 구제한 다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였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명실 공히 이방교회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소명은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그는 다메섹에서 회개한 후 13년 동안 아라비아 다소 안디옥 등지에서 전도와 목회의 경험을 통하여 선교사의 준비를 하였으며 마침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다(행13:1-3).

2)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임명받고 주후 46년 떠난 지중해에 있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출발했다(행13:4). 바울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 이르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바예수(아람어/헬라어로는 엘루마. 그 뜻은 박수 즉 마술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바예수를 잠시 동안 소경으로 만드는 이적을 나타낸다. 그 결과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초대하여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 사울이란 이름 대신 바울이라고 부른다.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갔다.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름 대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방 전도의 주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다(행13:4-13).

3)두번째 선교지는 갈라디아 지방의 밤빌리아였다(행13;13). 바울은 이곳에서 말라리아 열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으며 그 결과 버가의 내륙 지방의 전도를 취소하고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버

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이 있는 험한 산길이었는데 이 길을 바울은 약함 몸으로 갔다. 이 때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 마가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행 13:13-41절).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의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로 로마인들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바울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갈4:14). 바울은 회당장에게 초청을 받아 전도할 수 있었다(행 13:6-41절). 구약에서 예언한대로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새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했다(행 13:14-43). 설교의 반응으로 유대인들은 고관 부인들과 남편들을 총동하여 바울은 많은 매를 맺고 추방당했다(딤후3:11/행13:48-52).

4) 이고니온의 전도 : 이곳에서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행14:1-7절)”고 할 만큼 회당에서의 전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유대인 불법적인 폭동을 일으켜 두 사도를 돌려 치려 하였다. 바울은 이곳을 피하여 18마일 떨어진 루기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루스드라에서는 앓은뱅이가 일어났다(행14:8-13). 특별히 이곳은 제우스 신전이 있는 것이다. 바울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바나바를 쓰스(제우스 신)이라 부르고, 바울을 허메(제우스 신의 대변자)라고 불렀다. 이 때 바울의 설교가 행14:15-17절에 기록되어 있다. 아레오바고 설교(행17:22-31)와 함께 순전히 이방인 청중들에게 행한 설교로서 전도 설교를 위한 좋은 예가 된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핍박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다. 그러나 이곳에서 디모데가 회개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수확이다(행14:19).

5)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30마일 떨어진 더베로 갔다. 이곳은 1차 전도여행의 종착역이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었다는 성공적인 결론만 언급한다.

6) 그 후 바울은 전에 전도한 장소를 다시 순회하면서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였다. 바울이 주로 한 것은 새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위한 것으로서 이 때 처음으로 장로들이 공적으로 임명되었다. 바울은 새로 임명된 장로들에게 가르침과 행정을 위임하고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다소와 밤빌리아를 지나 그의 모든 이방 전도의 중심지인 수리아의 안디옥교회로 돌아왔다(행14:20-27절).

7) 1차 선교여행의 특징

첫째,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했다(롬15:20).

둘째,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 주변의 복음화는 새로 설립된 교회에 일임했다.

셋째로 계획된 전도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지를 택했다.

넷째,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고전9:19-23) 때에 따라 전도 방법을 달리 했다.

신약성경 제5강 바울의 2차 전도여행

1.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

1)행15:36

2)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선다(37절)

3)제2차 전도여행의 여정

*행16장 : 더베/루스드라/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네압볼리/빌립보

*행17장 : 빌립보/암비볼리/아볼로니아/데살로니가/베뢰아/아덴

*행18장 : 아덴/고린도/겐그리아/에베소/가이사랴/예루살렘/안디옥

2. 디모데를 만남

바울이 간 곳은 디모데를 회개시킨 루스드라였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가지는 혐오감은 대단했다. 바울은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고전9:20). 전도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행16:5).”

1)행16:1-2

2)디모데를 할례 한 이유

3)예루살렘 공의회를 전함(행15장)

3. 마게도냐인의 환상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간 것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행16:6).” 이 성령의 금지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병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심한 병으로 계획은 취소되고 유럽의 선교가 시작될 것이다. 바울은 병을 위해 여러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12:7-9)”고 대답하셨다.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다.

1)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행16:6).

바울은 몸에 질병으로 기도했다(고후12:7-9).

2)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다(행16:9절).

3)빌립보에서 복음 전파.

*강가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남(행16:13-15).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됨(행16:19-23).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간수의 회개).

4. 행17장

1) 데살로니가 전도(행17:1-9)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좋은 항구요 주변에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머물면서 회당을 통하여 몇몇의 유대인과 많은 헬라인 개종자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불신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이곳을 떠났다.

2) 베뢰아에서 전도(행17:10-15)

여기서 바울은 베뢰아를 방문했다. 이곳은 데살로니가와는 대조적이었다(행17:11).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불신 유대인들은 이곳까지 따라와 사람들을 움직여 요동케 함으로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되었다. 가는 길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된 돌비석을 보았다. 아덴 시는 많은 신전을 가진 500피트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언덕 서쪽에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이 있다. 바울은 이곳에서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행17:16-31)를 행했다.

3) 아덴에서 변론(행17:16-21)

4) 아레오바고에서 설교(22-31절)

5) 아덴 전도의 결과(32-34절)

5. 행18장

1)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1-4절).

다음으로 바울이 간 곳은 고린도이다. 아덴이 문화로 명성이 있다면 고린도는 부패로서 유명한 곳이다. 당시 이것으로 물려온 사람들은 상업과 죄악 때문이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사치와 방종을 뜻한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천막 수선을 통하여 선교 비용을 벌고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 쫓겨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의 집에 머물렀다(행18:2).

2) 고린도에서 전도활동(5-11절)

3)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12-17절)

4)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침(18-22절)

바울은 갈리오의 판결이 있는 후 몇 달을 머물다가 수리아와 팔레스틴을 방문하기 위하여 고린도를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고린도 동쪽의 항구인 겐그리아로 갔다. 여기서 바울은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 바울의 서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브루스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가 아닌가 한다.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머물고 가이사랴로 떠났다. 그러나 아굴라 내외는 에베소에 55년말 까지 머물고 56년에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돌아오니 이것으로 2차 선교여행이 끝난다.

신약성경 제6강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1.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1) 출발 :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행18:23).”

2)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굴라(행18:24-28)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아볼로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행20:34).

2. 에베소 사역

1) 에베소의 오순절(행19:1-7)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 두 사람쯤 되니라.

2) 바울은 두란노에서 강론했다(행19:10) : 유대인의 반대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인가?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다.

3)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행19:11-12)

4) 마술사들이 회개한다(행19:13-20) : 에베소는 아데미(다이아나) 여신과 마술의 도시이다.

5) 에베소의 폭동(행19:23-30) :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으나 서기장이 무리들 해산했다.

3.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선교(행20:1-16)

1)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행20:1-2).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로아 등을 방문했다. 교회를 격려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곤고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었다.

2)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행20:3) :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다. 수도가 고린도이다. 56-57년 겨울이다. 이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

3)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행20:3) :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 순례선을 타려 했으나 유대인들의 음모로 노정을 변경하여 육로로 돌아갔다.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재(행20:4) : 2년 동안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한 것을 전달할 자이다.

5)드로아의 기적(행20:7-12) : 유두고가 살아났다 : 드로아에서 주일을 지냈다. 유두고는 왜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그는 노동자이고 밤이 깊었다. 실내 공기가 탁했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유두고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날 철야집회는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4.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설교(행20:17-38)

- 1)에베소 장로를 청한 배경(행20:17)
- 2)예루살렘으로 가는 비정한 심정(행20:22-24)
- 3)목회에 대한 부탁(행20:28-32)
- 4)삶의 모본(행20:33-35)
- 5)아름다운 이별(행20:36-38)

5. 예루살렘으로

- 1)두로에 상륙(행21:3) : 제자들의 만류
- 2)가이사라 상륙(행21:8) : 빌립의 딸의 예언
- 3)예루살렘 도착(행21:17-22) : 환영과 염려
- 4)결례를 행하라(행21:23-29) : 유대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결례.
- 5)성전에서 폭동(행21:30-36) :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폭동이 일어났다.

6. 가이사라에서 감옥생활

- 1)벨릭스의 재판 : 바울은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된다(행23:31-35). 벨릭스는 재판을 2년 동안이나 지연한다(행24:24-27).
- 2)베스도의 재판 :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한다(행25:12).
- 3)아그립바 앞에서 :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아그립바왕에게 심문을 요청한다. 아그립바는 바울의 혐의를 찾지 못한다(행26:30-32)

7. 로마로 가는 배

- 1)바울의 항해와 파선(행27장)
- 2)멜리데섬 상륙(행28:1-10)
- 3)로마에 도착(행28:11-31) :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셋집에 구금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2년 동안 기소가 되지 않음으로 자동으로 풀려난 것으로 보이며, 석방된 후에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등으로 선교하다가 67년 네로 박해 때 투옥되어 참수당한 것으로 본다.

